

A Critical Study on the Three Models of Practical Theology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

20세기 후반 실천신학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한 비판적 연구

장신근(Shin-Geun Jang)

Abstract

This essay is a critical study of the three models of practical theology that emerged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the critical correlational model (Sherrill, Browning), the hermeneutical model (Groome, Gerkin), and the faith community formation model (Westerhoff, Campbell). This essay first explores the central ideas of practical theologians who adhere to each of the three models and focuses on Christian education, pastoral counseling, and homiletics. This essay then critically evaluates the three models in accordance to the following four themes: how practical theology has 1) responded to the challenges of postmodernity, 2) engaged in dialogue with different types of theology, 3) participated in interdisciplinary dialogue, and 4) understood Christian practice. In conclusion, this essay suggests that the essential tasks of contemporary Christian education as practical theology include: 1) providing an active response to many challenges of postmodern, postsecular, postdigital, and posthuman era, 2) engaging in interactive dialogue with diverse forms of theology, and 3) facilitating interdisciplinary dialogue based on transversal rationality, and 4) establishing of the concept of Christian practice at the individual, ecclesial, social, public, ecological, and digital levels.

Key Words

Critical correlational model, Hermeneutical model, Faith community formation model, Postmodernity, Christian practic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Presbyteria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Grant.

Received November 26, 2022 **Revised** December 28, 2022 **Accepted** December 29, 2022

Author : Shin-Geun Jang, Professor, Presbyteria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sgjang@puts.ac.kr

20세기 후반 실천신학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한 비판적 연구*

A Critical Study on the Three Models of Practical Theology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장신근(Shin-Geun Jang)**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비판적 상관관계신학 유형”(쉐릴, 힐트너, 브라우닝), “해석학적 유형”(그룸, 거킨), “신앙공동체적 형성 유형”(웨스터호프, 캄벨) 등과 같은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실천신학의 대표적인 세 가지 모델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먼저, 각 유형별로 기독교교육학, 목회상담학, 그리고 설교학 분야에서 2-3명의 대표적 학자를 선별하여 중심 사상을 유형별 특징과 연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응답, 신학과의 관계, 학제적 대화, 그리고 실천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각 유형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결론 및 제언 : 각 유형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실천신학으로서 오늘의 기독교교육의 핵심 과제는 포스트 시대의 여러 도전에 대한 적극적 응답, 오늘의 다양한 신학과의 상호적 대화, 횡단적 합리성에 기초한 학제적 대화, 개인적, 교회적, 사회적, 공적, 생태적, 더 나아가 디지털 차원까지 포괄하는 기독교적 실천 개념의 정립 등임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

비판적 상관관계신학 유형, 해석학적 유형, 신앙공동체적 형성 유형, 후기 근대성, 기독교 실천

□ 2022년 11월 26일 접수, 2022년 12월 28일 심사완료, 2022년 12월 29일 게재확정

* 이 논문은 2022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sgjang@puts.ac.kr

I. 들어가는 말

19세기 초 유럽 근대 연구대학의 맥락에서 하나의 독립된 학문 분야로 처음 자리잡기 시작한 실천신학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서서 실천신학은 시대적 도전, 신학적 흐름, 그리고 다양한 타학문과의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독특한 학문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본 연구에서는 실천신학의 여러 유형에 대한 역사적, 비판적 연구가 실천신학뿐 아니라 신학 전반의 미래 방향 모색을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20세기 후반의 세 가지 대표적인 실천신학의 유형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20세기 실천신학의 유형을 모두가 동의하는 유형으로 정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당대의 주요한 시대적 도전, 신학적 경향, 대표적 학자들과 같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주요한 유형들을 구별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실천신학의 미래 과제를 모색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작업이다.

특히 기독교교육학과 실천신학의 다른 분야들(목회상담학, 예배, 설교학, 영성신학 등) 사이의 활발한 대화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기독교교육학자로서 본 연구자는 융합적 학문이 강조되는 오늘의 상황에서 더더욱 요청되는 작업이 바로 실천신학의 유형 연구를 통한 기독교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점검하는 일이라고 본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상관관계 신학 유형”(쉐릴, 힐트너, 브라우닝), “해석학적 유형”(그룸, 거킨), “신앙공동체적 형성 유형”(웨스터호프, 챔벨) 등과 같은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세 가지 유형의 실천신학에 대한 비교를 통한 비판적 연구를 시도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근대성의 도전에 대한 응답을 시도하였던 20세기 전반과는 다르게, 다원주의적 경향이 심화되었던 20세기 후반의 포스트모던적 상황에서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실천신학은 어떻게 응답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별로 기독교교육학, 목회상담학, 그리고 설교학 분야에서 2-3명의 대표적 학자를 선별하여 중심 사상을 유형별 특징과 연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시대적 상황, 신학과의 관계, 학제적 대화, 그리고 실천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각 유형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II. 비판적 상관관계 신학 유형

비판적 상관관계 신학 혹은 수정주의 신학은 “중재의 신학자,” “문화신학자,” 혹은 “경계선상의 신학자”로 불리는 폴 틸리히(Paul Tillich, 1886-1965)의 상관관계 신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상관관계 신학의 목적은 문화적으로는 현대인이며, 감수성에서는 세속적이며, 종교적으로는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이해할 만하고 설득력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다(Kelsey, 1957). 톨리히는 문화와 종교,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학(또한 실존 철학)과 기독교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전자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질문을 소외, 수용, 치료, 불안 등과 같은 심리학의 개념을 통하여 제시하고, 후자는 이에 상응하는 궁극적 대답을 신학적 차원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종교’와 ‘문화’는 언제나 하나의 단일체로 ‘종교의 형식’이 문화가 되고 문화의 실체가 종교”가 되기 때문에 이 양자를 연관 짓는 일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그의 조직신학은 “이성과 계시,” “존재와 하나님,” “실존과 그리스도,” “삶/생명과 성령,” “역사와 하나님 나라” 등과 같이 실존철학적 질문과 신학적 대답으로 구성되어있다(Tillich, 1951, 1957, 1963).

그러나 상관관계 신학은 시카고 대학의 신학자 데이비드 트레이시(David Tracy)에 의하여 비판적 상관관계 신학 혹은 수정주의 신학으로 이어졌다. 트레이시는 철학이 질문을 제시하고 신학이 단순히 이에 상응하는 답을 제시하는 톨리히의 상관관계 방법은 너무 일방적이라고 보고 양자 사이의 비판적 상호성을 강조하였다. 브라우닝도 오늘의 다원주의적 상황에서 신학을 공적 담화(public discourse)로 정의하면서 신학과 타학문의 대화에 있어서 양자는 상호적인 비판적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다. 상관관계 신학의 관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개한 학자는 루이스 웨릴이었고, 비판적 상관관계 신학에 기초한 목회상담학은 씨워드 힐트너가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고, 이후에 단 브라우닝이 이를 본격적으로 발전시켰다.

1. 상관관계 신학 유형: 웨릴

톨리히의 상관관계 신학 접근은 미국의 장로교 기독교교육 학자인 루이스 웨릴(Lewis Sherrill, 1892-1957)의 저서에 잘 나타난다. 그는 “불안정, 비판, 절망에 고민하는 곤란의 시대” 상황에서 심리학과 대화의 통한 “만남”(encounter)의 기독교교육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신생아부터 노년기까지 종교적 삶의 심리적 차원을 기술한 『만남의 종교심리(1981)』, *The Struggle of the Soul* (1953)에서는 실험심리학이나 발달심리학보다는 정신분석학을 통하여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 그가 정신분석학을 선택한 이유는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관계적 언어를 사용할 때 보다 총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웨릴은 불안(anxiety), 지각(perception), 관계(relationship), 양면 감정(ambivalence), 동일화(identification)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한 신앙적 양육의 차원을 이들과 연계시켰다.

『만남의 기독교교육(1981)』, *The Gift of Power* (1955)에서는 1) 위기의 신호, 2) 신학적 색인에 대한 요청, 3) 현대적 삶의 심층에 대한 탐색 등과 같은 웨릴의 고유한 수사적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Osmer & Schweitzer, 128-30). 웨릴은 『만남의 기독교교육』 뿐

아니라 자신의 여러 책에서 근대성이 수반하는 위기들을 지적하면서 근대성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본 자유주의 신학자들과는 다르게 현실주의적 평가를 내린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교회의 응답은 무엇보다 신학적 쇄신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교개혁 신학의 중심 주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톨리히를 비롯하여 니버 형제, 에밀 부르너, 죄렌 키에르케고어의 신학에 기초한다. 이러한 신학적 주제의 회복을 위해서 그는 문화의 심층적 차원을 심프로이트 심리학자인 캐런 호니(Karen Horney)와 해리 설리번(Harry Sullivan) 등의 심층심리학과 같은 문화적인 근대성의 자료들(resources)을 통하여 질문하고, 이를 기독교적 대답과 상관관계시키는 만남의 기독교교육 모델을 제안한다(Osmer & Schweitzer, 129).

쉐릴에 의하면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자기 초월과 창조적, 가능성적 존재(potential self)” 이면서 동시에 “불안에 떠는 실존적 자아(existing self)”이다. 신학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지만 동시에 “타락한” 존재이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가능적 자아”이면서, 동시에 불안에 떠는 “실존적 자아”로서 타락한 존재라는 역설적 양면성을 지닌 존재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실존적 인간은 존재화를 위협하는 존재론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상황적 불안 등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계시를 절실히 요청한다. 이때 사용되는 계시라는 용어는 니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변형적 만남을 뜻한다(Sherrill, 1981, 124-26).

기독교교육의 과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 혹은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실존적 자아”가 “가능적 자아”로, 혹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간으로 변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만남을 통한 변화는 가정과 교회로 대표되는 “기독교 공동체(communion)” 안에서 복음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쉐릴은 복음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성서에 나타나는 다양한 상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상징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 인간의 곤경,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 이야기의 공통적 매개체를 제공한다(Sherrill, 1981, 153-73). 성서 교육법에서도 쉐릴은 톨리히처럼 창조, 주권, 소명, 심판, 구속, 재창조, 섭리, 신앙생활 등 성서에 나타나는 다양한 주제들(themes)을 인간의 곤경(predicament)과 대응(correspondence) 또는 상호연관 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Sherrill, 1981, 227-37).

2. 비판적 상관관계: 힐트너, 브라우닝

목회상담학에서 비판적 상관관계 접근은 먼저 씨워드 힐트너(Seward Hiltner, 1909-1984)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톨리히의 상관관계 신학의 영향으로 신학적 주제와 심리학적 주제를 연관시키는 법을 배웠으나, 사실상 자신의 방법을 톨리히의 방법과 구별한다. 즉 톨

리히는 신학(신앙)과 문화(심리학)의 대화에서 해답은 항상 신학으로부터 온다고 가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았다(Campbell, 1983, 243). 힐트너는 이러한 대화에서 쌍방통행이 가능하다고 보면서 “...문화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신앙이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에 의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문화가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한다(Campbell, 1983, 243). 즉 톨리히의 상관관계 방법은 “신학적 입장에서 심리학을 이해하는 방법이지만, 힐트너의 방법은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기 위해 심리학과 신학을 상호비판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수정된 상관관계 방법(revised method of correlation)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다(손운산, 68).

비판적 상관관계 방법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목회상담학자는 단 브라우닝(Don Browning, 1934-2010)이다. 그는 오늘의 목회적 돌봄이 다음과 같은 이중적 위기에 처했다고 본다. 첫째는 돌봄이 기구적, 개념적으로 상대적으로 자율화된 영적, 심리적, 육체적 영역으로 분화되었다(지원의 분화화 현상). 둘째는 다원주의적 문화와 사회적 상황이다(Browning, 1983, 13).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우닝은 실천신학이 이처럼 파편화된 분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즉, 목회적 돌봄은 오늘의 다원주의 상황에서 “실천적 도덕 이성(practical moral reasoning)”에 기초하여 기독교 전통과 교회 내부와 공적 세계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상관시켜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트레이시의 수정주의 또는 비판적 상관관계 방법론에 기초하여 브라우닝은 다음의 두 가지를 비판적으로 상호 연관시킨다. 첫째는 “기독교적 증언의 해석에서 나타나는 인간행위와 성취에 대한 규범들”이다. 둘째는 “일상의 인간경험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서 나타나는 행위와 성취에 대한 규범들”이다(Browning, 1983, 50). 실천신학은 이러한 두 가지를 “보편적인 실천 도덕 이성”을 통하여 상호비판적으로 연결시킴으로서 교회와 공적 세계 모두를 포괄하는 공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상호비판은 1) 문제에 대한 경험, 2) 집중과 청취, 3) 비판적 분석과 비교, 4) 결정과 전략 등 네 가지 단계와(Browning, 1983, 51-52), 보다 구체적으로 “비전적/은유적 차원,” “의무론적 차원,” “성향-욕구의 차원,” “상황적 차원,” “규칙-역할의 차원”과 같은 실천적 도덕 이성의 다섯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Browning, 1983, 53-71).

III. 해석학적 유형

모든 인간 경험이 지닌 해석의 본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서 해석학은 신학, 특히 실천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트레이시에 의하면 실천신학은 “기독교적 사실의 해석된 이론

이나 프락시스와 현대적 상황의 해석된 이론 및 프락시스 사이의 상호비판적인 상관관계”이다(Tracy, 1986, 85). 이처럼 실천신학이 기독교의 역사, 전통, 실천을 오늘의 상황과 매개하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이는 해석학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해석학은 실천신학의 메타 학문적 차원뿐 아니라, 경험적 연구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론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현재도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독교적 종교교육을 주창한 가톨릭 종교교육학자인 토마스 그룹의 공유적 실천이론과 찰스 거킨의 해석학적 목회상담학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기로 한다.

1. 그룹

토마스 그룹(Thomas Groome, 1945-)은 “공유적 실천(shared praxis)” 이론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기독교 종교교육학자이다. 그는 『기독교적 종교교육(1983)』,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1980)에서 먼저 기독교적 종교교육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육,” “기독교 신앙을 위한 교육,” “인간 자유를 위한 교육” 등을 지향하는 교육임을 밝히면서 각각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기독교 교육학적 논의를 전개한다(Groome, 1983). 그리고 이 책이 출판된 1980년대 당시의 기독교 교육적 상황을 진단하면서 갈등 관계에 있었던 두 개념인 “사회화”와 “교육” 사이의 통합을 위한 공유적 실천이론을 제안하기 위하여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주지주의 철학자들, 마르크스, 하버마스, 그리고 파울로 프레이리 등의 프락시스 개념을 고찰한다. 그룹은 이를 통하여 공유적 실천에 기초하여 해석학적 과정으로서 기독교 종교교육이 지향하는 앎은 사변적, 추상적, 혹은 객관적 앎이 아니라 성서에 나타나는 관계적, 경험적, 성찰적 앎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앎은 이론과 실천 사이의 상호성과 인간해방과 자유를 추구하는 실천적 앎이다.

공유적 실천은 교육적 의도로 구성된 해석 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 해석학적 원리에 따라서 기독교의 이야기와 비전(Story & Vision)의 조명하에 학습자들의 현재 프락시스 또는 이야기(stories)에 대한 비평적 성찰을 변증법적으로 대화시킨다. 공유적 실천 모델은 “인간의 나눔의 본성에 대한 강조,” “공적 신앙으로의 전환,” “새롭게 부각하는 접근법,” “신앙 문화화”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나눔의 교육과 목회(1997)』, *Sharing Faith* (1991)에서는 그룹이 자신의 초기 저서에서 제안한 5가지 무브먼트에 “초기화 활동”을 추가하고 수정하여 정교화하였다(Groome, 1997). “초기화 활동”은 커리큘럼의 주제(특히 발생적 주제, generative theme)를 명료화시키고 주제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경우, 참석자들과 함께 주제와 방향을 정하는 단계이다. 1) “현재 프락시스(삶)를 표현하기”는 학습자, 참여자들이 현재의 행동 혹은 삶, 사회적 행위, 위치 등을 언어와 상징, 마임, 춤 등 기타 여러 방법을 통

하여 표현해 보는 단계이다. 2) “현재 삶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제1 무브먼트에서 표현된 것을 비판적, 분석적, 역사적 사고뿐 아니라, 창의적이고 사회적 상상력까지 사용하여 성찰하는 것이다. 3) “기독교 이야기와 비전에 접근하기”는 성서, 전통, 예식과 같은 기독교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통치의 비전을 초기화 활동에서 정한 주제 혹은 상징들에 적용하는 단계이다. 4) “기독교 이야기와 비전의 자기화”는 제3 무브먼트에서 배운 기독교 이야기와 비전을 개개인의 현재 프락시스에 적용하는 단계이다. 즉, “자신의 삶과 기독교 이야기와 비전을 변증적 관계에서 해석한다”(Groome, 1997, 56-57). 변증적 해석이란 “참석자가 자신의 삶, 역사적 상황에 기독교 이야기와 비전을 적용해 보는 단계로서 그 결과 그 이야기와 비전을 자기화 할 수 있게 된다”(Groome, 1997, 57). 5) “실천적 신앙을 위한 결단/응답”은 “제4 무브먼트에서 자기화시킨 기독교 이야기/비전을 실제로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단계”이다. 여기에서 참석자들은 대화를 통하여 각자의 기독교적 실천의 뜻을 정한다.

그림의 공유적 실천의 과정은 이처럼 연속되는 해석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여자들은 먼저 초기화 활동에서부터 자신의 현재 삶 가운데서 중요한 주제를 선택하는데(발생적 주제), 이러한 선택 행위 자체가 참여자의 삶과 경험과 연계된 해석적 과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삶에 대한 비판적 성찰 과정과, 이를 기독교의 이야기 및 비전의 빛 하에서 변증법적으로 대화하는 과정, 참여자와 기독교의 이야기와 비전 사이의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지평융합의 과정, 참여자들이 앎의 결과를 실천하는 과정 모두가 해석적 과정이다. 공유적 실천은 개인적 차원과 더불어 참여자들의 공동체적 차원의 해석과정을 중시하는데, 참여자는 해석적 활동의 주체이며, 교사는 이들의 해석과정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동반자 역할을 한다.

그림의 공유적 실천은 다음과 같은 해석학적 인식론을 전제하고 있다. 즉 “앎이란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사람의 삶과 경험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들이 떼려야 뗄 수 없게 연결된 순환의 관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앎은 인격과 연결되고, 이론은 실천과 순환관계에 있으며, 앎은 행위와 불가분리의 관계 안에 있다...”(양금희, 2007, 180).

2. 거킨

에모리 대학교 캔들러 신학대학원의 임상목회교육 교수였던 찰스 거킨(Charles Gerkin, 1922-2004)은 단 브라우닝, 제임스 랩슬리(James Lapsley), 존 패튼(John Patton)과 더불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목회상담의 신학적, 신앙적 교회적 정체성 회복 운동에 앞장선 인물이다(Gerkin, 1998, 259). 이 운동은 그동안 목회상담학이 지나치게 심리학

을 비롯한 사회과학에 의존해 온 것을 반성하면서 목회상담학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오랜 기간 목회상담, 위기목회, 학제적 임상 경험 등을 통하여 해석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학문적으로 발전시켜나갔다(Gerkin, 1998, 32-43). 그는 목회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위기체험(crisis experience)에 대한 해석을 중요시하였는데, “신학을 심리치료 이론에 종속시키지도 않고, 또한 심리치료적 언어를 선불리 신학적 용어나 하나님 이야기 속에 종속시키지도 않는 방법”을 고민하였다(Gerkin, 1998, 39).

이러한 맥락에서 거킨은 『살아있는 인간문서(1998)』, *Living Human Document* (1984)에서 신학적 언어와 심리학적 언어를 통합하기 위하여 제3의 메타언어로서 해석학을 목회상담학에 도입하여 이를 해석학적으로 구성하여 전개하였다.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해석하는 인간(hermeneutic person),” 즉 “의미를 만들어 가는 사람(meaning maker)”이라고 보았던 거킨은 안톤 보이슨(Anton Boisen)의 용어인 “살아있는 인간 문서”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목회상담이란 상담자가 내담자의 삶을 텍스트로 보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즉, 목회상담이란 “상담자와 내담자가 모두 참여하여 두 사람의 언어의 세계를 넘나들며 교류하는 대화의 해석학적 과정”이라는 것이다(Gerkin, 1998, 31). 그런데 이러한 대화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일어나지만, 상담자 안에서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

거킨의 해석학적 상담학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환경(setting) 혹은 분위기(atmosphere), 플롯(plot), 인물(character), 톤(tone) 등과 같은 특징을 지닌 이야기이다(Gerkin, 1998, 143-44). 그는 자신의 목회상담 경력 초기에 일탈 청소년들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투사적 성격검사법의 일종인 “이야기하기” 방식을 사용하였고, 그 후에 웨슬리 코트(Wesley Kort), 존 도미니크 크로산(John Dominic Crossan), 노드롭 프라이(Northrop Frye) 등의 이야기 이론과 문예비평 이론 등을 목회상담과 연결시켰다. “이야기란 사물에 대한 언어적 모사이다. 더 나아가 그것은 단순한 모사가 아니라, 사물과 사건 사이의 인연과 결과를 담고 있는 모사다… 더 나아가 그 의사전달자를 형성하고 변형시키는 인간형성의 도구이기도 하다”(안석모, 2011, 179).

이러한 맥락에서 거킨에게 있어서 상담이란 내담자가 상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해석하는 가운데 내담자의 이야기가 변화되는 과정이다. 이때 내담자뿐 아니라 상담자도 자신의 이야기(전이해)를 상담의 현장에 가지고 온다. 이러한 두 이야기 사이에는 가다머가 주장한 것처럼 의미와 이해의 “지평융합” 혹은 “상호주관적 합병”이 이루어진다(Gerkin, 1998, 55). 내담자의 이야기와 상담자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평융합을 통하여 “대안 이야기”가 생겨나며, 혹은 두 이야기가 합류되면서 이야기의 변화가 일어난다. 상담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서에 기초한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포함시키는 과정이다(Gerkin, 1986, 54).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석하고 이것을 성서의 이야기에 의하여 창조적

으로 재구성 혹은 새롭게 이야기하도록 도와주는 해석적 안내자(interpretive guide)이다 (Gerkin, 1999, 133-34).

여기에서 성서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아우르는 이야기(overarching narrative)이며, 동시에 사람들에게 토대를 제공하는 이야기(grounding narrative)이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적과 방향인 플롯”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게 해준다(Gerkin, 1986, 48-51). 상담은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이야기와 상식을 공유하는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상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기독교공동체와 그 공동체가 구현하는 이야기를 자원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새롭게 보고, 새롭게 이야기하며, 그 이야기의 변화를 통해 그 사람의 삶의 형성과 변혁을 도와주는 것”이다(안석모, 2001, 186).

IV. 신앙공동체적 형성 유형

신앙공동체적 형성 유형은 신학적으로는 서로 구분되면서도 신앙공동체에 대한 강조에서는 공통점을 지닌 두 가지 접근을 포함한다. 첫째는 보다 초기의 형태로 해방신학적 관점에 기초한 존 웨스터호프(John Westerhoff III, 1933-)의 “신앙공동체” 혹은 “종교사회화/신앙문화화” 모델이다. 이 모델은 캠벨의 두 번째 모델과는 다르게 비판적 상관관계 신학에 대한 명시적인 비판으로 시작하기보다는, 기독교적 신앙생태계가 상실되어가는 1960년대 미국의 상황에서 기독교 신앙공동체를 통한 신앙의 양육을 지향하는 모델이다. 신앙공동체인 회중의 맥락에서 모든 세대가 성서의 이야기, 예전, 삶의 경험 등의 공유를 통한 신앙 양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두 번째 모델과 유사하다. 하지만, 신학적 입장에서는, 해방신학을 채택함으로써 차이를 보인다.

두 번째는 바르트 신학, 알래스테어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의 공동체적 덕윤리,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의 문화인류학 등에 기초한 후기자유주의 신학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설교학자 찰스 캠벨(Charles Campbell)의 모델이다. 한스 프라이(Hans Frei), 조지 린드백(George Lindbeck), 윌리엄 플래처(William Placher), 스탠리 하우어와스(Stanley Hauerwas) 등을 넓은 의미의 후기자유주의 신학자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인간의 종교적 경험의 보편성을 강조한 비판적 상관관계 신학자들의 주장에 반대하고 기독교적 정체성과 독특성, 신앙의 문화-언어적인 차원, 공동체를 통한 신앙적 품성 형성 등을 강조한다.

1. 웨스터호프

웨스터호프는 1960년대 신정통주의 신학과 이에 기초한 기독교교육 운동과 주일학교의 쇠퇴와 함께 미국 사회의 급속한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대안적 형태의 기독교교육을 모색하였다. 그는 *Values for Tomorrow's Children* (1970)과 기독교교육의 역사에서 전환점을 마련한 『교회의 신앙교육(1983)』,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1976)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당시 기독교교육이 직면한 현실을 진단하면서 미국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신앙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주일학교가 병들어 죽었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였다. 교회학교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도전 앞에서 교사에 의한 일방적인 가르침 위주의 제도화된 학교식-교수 패러다임(schooling-instruction paradigm)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신앙계승에 실패하였고 그 결과 수 많은 젊은 세대가 교회와 신앙을 떠나버렸다.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계승의 실패는 교회가 신앙의 생태환경이 무너지는 시대적 상황에서조차 여전히 상호적 의사소통이 없는 학교식의 형식화된 교수방법에 의존함으로써 신앙교육의 핵심인 인격적이고 공동체적인 특성을 놓쳐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웨스터호프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의 본질은 학교식-교수 패러다임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 바로 “신앙-문화화 공동체의 패러다임”(community of faith-enculturation paradigm) 또는 “종교 사회화”(religious socialization)이다. 여기에서 사회화란 “사람들이 어떤 사태와 사항에 직면하여 획득하거나 자기의 삶의 방식을 체득하거나 하는 경우에 작용하는 모든 의도적이고, 무의도적인 영향관계의 과정 전부”를 지칭한다(Westerhoff, 1983, 43). 넓은 의미에서 “신앙공동체 이론”이라고 불리는 이 모델은 신앙이란 개인적인 교수를 통하여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신실한 신앙공동체 안에서 예배의식, 경험, 행동 등을 통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즉 문화화 혹은 사회화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내면화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명시적 커리큘럼보다는 잠재적 커리큘럼이 더욱 중요하게 간주된다.

웨스터호프는 기독교교육의 핵심 현장으로서 신앙공동체인 교회는 먼저 “친교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신앙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서로에게 배우는 것이다(Westerhoff, 1983, 50). 성인과 어린이는 예전, 봉사, 친교, 기도, 활동 등을 통하여 서로에게 배운다. 그는 “크리스찬으로서 타인과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미 본래적으로 교육적 사건이 아닌가?”라고 반문한다(Westerhoff, 1983, 51).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계승은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친교라는 맥락에서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 참여할 때 가능하다.

신앙은 마음을 열고 그것을 행위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고는 파악될 수 없는 사항이다 ... 오히려 신앙은 역사 속에서 신앙의 전통을 담당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와 연결되어, 지금 여기에서 그 같은 믿음을 서로 나누는 사람들에 의해 단적으로 표명되며, 개혁되며, 새로운 의미를 획득해가는 일이다 (Westerhoff, 1983, 54).

웨스터호프는 이러한 신앙공동체 이론의 신학적 기초로 해방신학을 제안하는데, 그 이유는 해방신학이 종교교육운동의 신학적 기초인 자유주의 신학과 기독교교육 운동의 신학적 기초인 신정통주의 신학을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Westerhoff, 1983, 67). 해방신학적 반성의 결과로 그는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모델, 즉 “신앙-문화화 공동체의 패러다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1) 신앙공동체는 “명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며, 계약에 기초하고 순례자의 길을 선택하며, 과격하고도 저항문화적이며, 한편 전승을 담당하면서도 개인과 공동체 생활의 전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다.” 2) 기독교교육의 방법은 행동인데, 이것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상호 간의 행동이며, 다시 신앙의 전개를 뒷받침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이 세계에서 근본적으로 또한 철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자리, 환경 속에서 행해지는 행동이다”(Westerhoff, 1983, 96-97).

구체적으로 이러한 신앙공동체는 첫째, “공통적인 기억(memory) 혹은 전승(tradition)과 삶에 관한 공통의 이해와 삶의 방식, 공통의 목적과 의지를 공유”하며, 둘째, “그 구성원들이 의미와 목적을 지닌 상호작용(interaction)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소규모”여야 하며(300명 정도), 셋째, “세 개의 세대(three generation)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고 그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날 필요”가 있으며, 넷째, “그 각 세대가 다하는 역할의 모두를 통합(unite)”해야 한다(Westerhoff, 1983, 102-105). 이러한 신앙공동체에서는 의식(ritual), 경험(experience), 제반 활동들(activities)과 같은 공동생활의 세 가지 국면에 기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Westerhoff, 1983, 105-124), 신앙의 다양한 유형 또는 형태에 따라서 경험적 신앙(유아기), 귀속적 신앙(아동, 청소년기), 탐구적 신앙(초기 성년기), 고백적 신앙(초기 성년기 이후)의 형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Westerhoff, 1983, 143-78).

2. 켈벨

설교학자인 찰스 켈벨은 『프리칭 예수(2001)』, *Preaching Jesus* (1997) 에서 찰스 라이스(Charles Rice), 프레드 크래독(Fred Craddock), 에드문트 스테임멜(Edmund Steimle), 유진 로우리(Eugen Lowry) 등과 같은 당시의 서사적 설교학자들이 서사를 부적절하게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서사적 설교의 공통점은 1) 인간의 체험에 대한

강조, 2) 성경의 세계와 오늘의 세계의 연결, 3) 비유와 서사적 줄거리(plot)에 대한 강조 등이다. 오늘의 설교학에 대한 여러 가지 공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설교를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사건으로 이해함으로써 결국 자유주의적인 “신학적 연결주의”(theological relationalism)를 초래하는데, 이는 인간의 체험 없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복음서의 서사를 통하여 그분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 보다는, 바로 인간의 경험이 설교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된다…[그 결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더 이상 성경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감당하고 있는 독특한 역할에 의하여 인식되지 않고, 하나님과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인간의 체험 속에서만 인식될 뿐이다(Campbell, 2001, 227-28).

결론적으로 최근의 서사 설교에서의 체험에 대한 강조는 “하나님을 지나치게 즉각적인 인간의 체험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신학적 관계주의[연결주의]를 야기한다”(Campbell, 2001, 229).

이와 더불어 켈멜에 의하면 최근의 서사적 설교학은 다음과 같은 부가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기독교 신앙을 개인의 영역에만 국한시키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 “말씀-사건이라는 개념을 인간의 체험과 연결시키면서 설교의 언어를 매우 제한된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셋째, 설교에서 개인적 체험적 사건에 대한 강조와 동시에 설교의 역할을 신앙공동체를 세우는 것으로 보는 것 사이의 모순을 보인다. 넷째, 변화와 체험의 사건을 불러오는 설교학적 기교에 대한 맹목적 확신 등이다(Campbell, 2001, 229-32). 즉, 켈멜은 최근의 설교학은 “개인주의적이고 경험 중심적인 사건을 강조하며” 설교가 “근본적으로 신학적인 행위”(Campbell, 2001, 20)임에도 불구하고 설교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반성이 부족하며, 설교 신학도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 후기자유주의 신학자인 프라이의 문화-언어학적 접근에 기초하여 대안적 형태의 설교를 제안한다(Campbell, 2001, 20).

바르트 신학에 큰 영향을 받은 프라이의 신학은 근대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한다. 프라이에 의하면 “자유주의적이고 변증적인 신학은 오히려 기독교의 믿음이 갖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를 보편적인 인간의 필요나 공통적인 인간의 경험과 관련지어서 주장하는 것을 지속적인 목표로 삼는다”(Campbell, 2001, 68). 또한 프라이는 신정통주의 신학에서도 벗어나서 “자유주의의 결점을 극복할 수 있는 탈자유주의적 신학(post-liberal theology)을 비변증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발전시키려고 하였다”(Campbell, 2001, 67). 프라이의 이러한 탈자유주의(후기자유주의) 신학에 기초한 설교학은 “기독교에 대한 문화-언어적 모델(cultural-linguistic model)과 공동체적 해석학(a communal hermeneutics)”(Campbell, 2001, 23)이라고 불린다.

문화-언어적 설교는 이런 맥락에서 먼저 “나사렛 예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복음서

의 특정 서사”(Campbell, 2001, 296),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며, 그 이야기가 설교의 내용과 형식을 형성한다(Campbell, 2001, 344). 설교는 이러한 나사렛 예수의 길을 따르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다(Campbell, 2001, 296). 그런데 문화-언어적 설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것을 “특정한 문화-언어적 공동체 안에서의 사회화 과정 또는 문화화(enculturation)의 과정”이라고 본다. 마치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설교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경험과 이해, 그리고 삶을 형성시키는 언어와 실천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의 문제”이다(Campbell, 2001, 120). 이런 맥락에서 캠벨은 “교회의 설교는 신앙공동체의 공동의 삶을 형성하는데 필요로 하는 공적인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보는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의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Campbell, 2001, 356).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종교적 체험이나 청중의 삶의 문제에 대한 실존적 응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교회 안에 구현되어 가는 공동체적 과정”이다(Campbell, 2001, 7).

캠벨에 의하면 설교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작업”(Campbell, 2001, 350)으로, 이를 통하여 “청중 개개인에게 경험적인 사건을 느끼도록 해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어야 한다”(Campbell, 2001, 345). 즉, 설교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킴으로써 교회를 세워가는 작업”이다(Campbell, 2001, 373). 문화-언어적 설교모델에서 언어는 자유주의 설교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불러일으켜 내거나 표현하려는 상징들의 집합체계보다는 공적이고 공동체적인 행동에 대한 일종의 단체적인 지침”으로 이해된다(Campbell, 2001, 363). 설교의 언어는 “수행적이고 변혁적이며 참여적인 특성”을 지닌다(Campbell, 2001, 373). 따라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것을 구현해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뒤를 따라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까지 나가야한다”(Campbell, 2001, 346).

이처럼 캠벨은 프라이의 신학에 기초하여 전통적 설교와 귀납법적 설교를 넘어서서 “해석 공동체의 역할,” “언어-문화적 모델,” “언어적 하부구조,” “본문내향적 해설,”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이론” 등을 강조하는 탈자유주의적(후기자유주의적) 설교를 제안한다(Campbell, 2001, 역자서문, 12-15).

V. 세 가지 유형의 실천신학에 대한 비판적 평가

여기에서는 1)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응답, 2) 신학과의 대화, 3) 학제적 대화, 4) 실천의

문제 등 네 가지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앞에서 논의한 20세기 후반의 세 가지 유형의 실천신학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시도한다.

1.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응답

모든 신학은 상황적이라는 사실은 실천신학의 논의에서도 그대로 잘 드러난다. 20세기 전반과 중반에 출현한 “개신교 자유주의 유형,” “신종교개혁 유형,” “비판적 프락시스 유형” 등의 실천신학이 대체로 “근대성”의 도전에 대한 응답과 관련되어 있다면, 본 연구에서 다룬 세 가지 유형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른 “포스트모던적 상황” 혹은 “후기 근대성”에 대한 응답과 연관되어 있다.

비판적 상관관계 신학 유형의 경우, 1950년대에 등장한 쉐릴은 여전히 근대성의 도전에 대한 문제들(가정의 높은 이혼율, 가정생활의 내적 긴장 증가, 근대적 삶에 널리 퍼져있는 불확실성, 불안, 죄책감, 절망 등)과 씨름하였다. 하지만 브라우닝은 1970-80년대를 전후로 미국 사회가 급격히 다원화, 다문화화 되어감에 따라서 다원적 가치관과 또한 돌봄의 기구가 다원화되어 가는 포스트모던적 상황을 중요한 도전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브라우닝은 비판적 상관관계의 방법에 기초한 목회상담학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비판적 상관관계 신학 유형에서는, 접근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근대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동화적 모습을 보인 개신교 자유주의 유형과 유사하게, 다른 유형보다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보편성과 개방성의 차원을 강조하는 가운데 포스트모던적 도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해석학적 유형 역시 이 시기의 급격한 사회 변화를 반영한다. 그룹은 신학의 중요한 과제를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기초한 총체적 인간해방으로 제시하는데 이는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가난과 억압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비인간화를 중요한 신학적 맥락으로 인식했던 해방신학의 현실 인식을 반영한다. 이러한 해방신학적 현실 이해는 개인적 차원의 영적 해방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차원의 체제적, 구조적 변혁을 포괄하는 전인적인 해방이다. 그룹의 해방신학적 현실 이해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거대 담론에 대한 해체와 인간해방을 지향하는 포스트모던 사상가들(특히 미완의 근대성의 완성을 지향하는 하버마스적인)과 큰 틀에서 맥을 같이하며 그 결과 공유적 실천이라는 비판적 프락시스를 중요시하는 교육모델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거킨의 경우 『살아있는 인간 문서』에서 포스트모던적 다원주의 상황에 대한 당시 목회상담학자들의 응답이 지나치게 동화적이라고 보고, 즉 심리학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목회상담학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그 대안을 모색한다. 그 결과 “해석학적 우회”와 더불어 “신

학적 우회”를 강조하면서 “순례,” “성육신,” “삼위일체” 등과 같은 성서적, 신학적 개념, 상징, 은유 등을 목회상담학에 적극 도입한다. 이는 일반 상담과는 구별되는 목회상담학의 고유한 기독교적 합리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거킨은 목회상담에 있어서 신앙공동체, 전례, 예배 등을 통한 양호[돌봄]를 강조함으로써 포스트모던적 상황에서 심리학과 대화뿐 아니라 기독교적 신앙적 정체성의 회복을 통한 보다 통전적인 목회상담학을 지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Gerkin, 1998, 17).

신앙공동체적 형성 유형에 속한 웨스터호프의 경우 1970년대 미국의 상황에서 시대적 변화로 인한 신앙생태계의 해체를 중요한 상황으로 다루고 있다. 과거 미국 사회는 가정, 교회, 학교, 지역사회가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동질의 생태환경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다음 세대의 신앙양육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웨스터호프는 급격한 산업화, 문화적 다원주의, 급속한 핵가족화, 민권운동,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어려움, 세속 매스 미디어의 파급력 확산, 지역사회의 중심으로서 교회의 역할 상실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신앙 생태환경이 급격하게 와해 되어가는 상황에서 교회학교의 학교식 교육을 통한 다음 세대의 신앙전수와 양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Westerhoff, 1999, 38-43). 이에 대한 실천신학적 응전은, 비판적 상관관계 유형과는 대조적으로, 신앙 양육의 모판이 되는 대항적 문화 공동체인 신앙공동체의 강화를 통한 강한 기독교 신앙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캠벨의 『프리칭 예수』에 나타나는 시대적 상황은 웨스터호프의 시대보다 포스트모던적 다원주의와 세계화가 더욱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20세기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캠벨은 비판적 상관관계 유형과는 대조적으로, 후기자유주의적 신학의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 강화를 통하여 다원주의적 도전에 응답한다. 즉, 십자가와 부활을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나타난 그분의 정체성에 기초한 설교 실천을 통하여 신앙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신실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다원주의적 도전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본다.

2. 신학과 대화

비판적 상관관계 신학 유형은 상관관계 신학에서 시작되었으나 신학과 타학문(문화) 사이의 상호비판적 관계를 강조하는 신학으로 계승되었다. 비판적 상관관계 신학은 다음의 다섯 가지 명제에 기초한다. 첫째, 신학의 핵심적 원천으로서 기독교의 텍스트와 공통적 인간경험과 언어, 둘째, 이상의 두 가지의 연구 결과에 대한 비판적 상관관계, 셋째, 공통적 인간경험과 언어 속의 종교적 차원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 넷째, 기독교적 전통에 대한 역

사적, 해석학적 방법을 통한 연구, 다섯째, 두 가지 원천의 연구결과에 대한 진리 여부 검증 을 위한 초월적 또는 형이상학적 유형의 성찰적 사고 등이다(Tracy, 1975, 43-56). 이런 맥락에서 신학은 공적 담화로써 오늘의 다원주의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 차원의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따라서 오늘의 다원주의 현실에서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보편성과 기독교 진리에 대한 변증을 통한 사회와의 소통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오늘의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신앙과 실천의 개인주의화, 사사화 현상, 세상과의 소통의 어려움 등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신학적 모델이 될 수 있다.

해석학적 유형은 철학적 해석학과의 대화를 통한 실천신학의 구성을 시도한다. 철학적 해석학은 메타이론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해석학적 유형의 실천신학뿐 아니라, 대부분의 실천신학 유형과 연관되어있다. 해석학적 유형은 신학, 특히 실천신학의 해석학적 특성을 강조하는 유형으로, 그룹의 경우는 해방신학과 비판적 상관관계 신학이 전제하고 있는 해석학적 전제에 기초하여 자신의 공유적 프락시스 모델을 제안한다. 해방신학은 프락시스적 인식론을 통하여 신학 전반에 걸쳐 신학의 실천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가장 큰 공헌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해방신학의 “신학함(doing theology)” 개념은 신학에서 이론과 실천 사이의 이분법적 구분을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는데, 공유적 프락시스 모델(shared praxis model)은 이러한 신학 함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교육모델이라 할 수 있다.

거킨의 경우, 해석은 해석자의 이해지평 안에서만 일어나기에 목회상담자는 자신의 이해를 위하여 성서적, 신학적 기초가 중요하다고 본다(Gerkin, 1998, 67). 그러나 거킨은 신학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삶의 비전과 실천을 형성하고, 태도와 조망 그리고 행동의 근원이 되는 자기 이해를 형성”하는 “패러다임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목회상담을 종말론적 순례의 과정으로 인식한다(Gerkin, 1998, 71). 그는 톨리히의 상관관계 신학에 기초한 “영적인 임재(Spiritual presence)”와 위르겐 몰트만의 삼위일체적 생태적 신학에 기초한 “인간해방”을 패러다임적 이미지로 사용한다. 전자의 경우 삶의 모든 것에서 궁극적인 것을 지향하게 하고, 삶의 다차원적 통일성을 가져오며, 힘의 언어와 의미의 언어(리피르)의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후자는 “역사의 경험적 실존”이며 동시에 “종말론적 정체성”을 지닌 인간 실존의 역설을 통합하게 해 준다. 목회상담의 방법은 결국 이러한 통합을 위한 관계의 촉진과 전환과 관련된다. 이처럼 거킨의 해석학적 유형에서도 비판적 상관관계 신학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

신앙공동체적 형성 유형은 신앙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각 각 상이한 신학적 입장에서 출발한다. 웨스터호프의 경우 『교회의 신앙교육』에서 해방신학을 신앙공동체 모델의 신학적 기초로 삼는다. 그에 의하면 해방신학은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 신학을 통합할 수 있는 신학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는 이 책 이후에는 해방신학과의 대화를 거의 시도하

지 않았고, 명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특정 신학적 입장과 동일시하지 않았으나 공동체, 의례, 이야기 등에 대한 그의 강조는 후기자유주의 입장과 매우 가까워 보인다(김은주, 2022; 유은희, 2019). 따라서 그는 기독교교육을 위한 신학적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해방신학을 일시적인 대화의 파트너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캠벨의 경우 프라이의 후기자유주의 신학을 자신의 설교학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인지적이며 명제적 진리에 대하여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특정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정체성에 기초하여 설교를 통하여 독특한 언어와 실천을 지속적으로 터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즉, 후기자유주의 신학은 다원주의 상황에서 신앙공동체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하지만, 후기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폴리스(polis)로서 교회 공동체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지만, 그 역할과 실천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제안은 매우 모호하다. 즉, 교회의 교회됨은 강조하지만 그것이 공적영역에서의 공동선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제대로 다루지 않음으로써 분파주의적 한계성을 보인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3. 학제적 대화

비판적 상관관계 신학 유형에서 신학이란 “공통적인 인간경험과 언어에 나타나는 의미들과 기독교적 사실에 나타나는 의미들에 대한 철학적 반성”이다(Tracy, 1975, 43). 신학자는 이 두 가지 원천(source)을 해석학적으로 해석하며, 이들을 종교가 사사화 되어버리고 종교의 진리 주장(truth claim)이 진리로서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는 다원주의 문화의 상황에서 비판적으로 상호 연관시키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신학과 타학문 사이의 학제적 대화에서 이러한 상호적, 비판적 관계의 강조는 타학문과 더욱 적극적이며 개방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이런 면에서 비판적 상관관계 신학은 신학의 학제적 대화를 가장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신학이라 할 수 있다. 신학에서의 학제적 대화가 타학문을 향한 신학의 일방적인 짝사랑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비판적 상관관계 방법은 상호적 대화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신학과 타학문 사이의 학제적 대화 과정에서 비판적 상관관계 신학 유형은 타학문(특히 실천철학)의 체제를 무 비판적으로 과도하게 채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하여 학제적 대화에서 선별적이며 임시적 관계를 강조하는 *ad hoc* 상관관계 방법을 사용하는 후기자유주의 신학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비판적 상관관계 신학에서는 중산층 백인 남성들이 주도하는 신학의 이론과 타학문 이론 사이의 추상적

이며 현실 유지적(*status quo*) 대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기독교의 해방 실천전통과 일반 역사 속에서의 해방실천 전통 사이의 비판적 대화를 주장한 레베카 찰(Rebecca Chopp)을 비롯한 여성 해방신학자들의 비판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해석학적 유형에서 그룹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헤겔의 비판철학, 마르크스주의, 가다머와 하버마스의 철학적 해석학 전통 등과의 대화를 시도한다. 해석학적 유형은 학제적 대화에서 비판적 상관관계 신학과 많은 점을 공유하지만, 학제적 대화를 통하여 불의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인간해방의 차원을 더욱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즉, 비판적 상관관계 유형은 가다머의 해석학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고, 그룹의 경우는, 특히 『기독교적 종교교육』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마르크스주의와 비판이론을 비판적으로 통합한 하버마스의 해석학 전통에 좀 더 근접한다고 할 수 있다.

거킨에 의하면 목회상담학은 “해석의 과학이자 예술의 연장”이며, 그가 추구하는 목적은 “살아있는 인간문서의 해석 과제를 더 넓은 해석학적 전통과 연결시키는 것”이다(Gerkin 67). 거킨은 텍스트의 해석에서 인간 자료의 해석이라는 차원으로 해석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작업을 목회상담학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목회상담학은 1) “성서적/신학적 기독교 전통,” 2) “내[목회상담자] 자신/내 삶의 딜레마,” 3) “나의 상담경험/거기서 부딪힌 문제들” 사이의 해석학적 대화과정이며, 이러한 것은 지속적인 문제제기, 교정, 정교화, 통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Gerkin, 1998, 73). 이처럼 살아있는 인간문서에 대한 상담자의 해석은 가다머가 말한 것처럼 내담자와의 대화의 과정, 즉 의미와 이해의 지평융합(혹은 “이해의 상호주관적 합병”)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양호[돌봄]란 자신의 이해의 지평을 열어 다른 사람의 세계가 들어오게 허용하고, 그럼으로써 진정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생겨나기를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이다”(Gerkin, 1998, 55). 이러한 이해의 지평융합 과정은 심리학과 목회상담 사이의 학제적 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거킨은 양자가 서로에게 창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비판적 상관관계에서의 학제적 대화 방법과 유사하다(Gerkin, 1998, 256-57).

거킨은 가다머와의 대화에 더하여 인간문서의 해석과 변화를 위하여 폴 리피르의 “힘의 언어”와 “의미의 언어”의 개념을 활용한다. 전자는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삶의 윤곽과 실존적인 정체감(*specificity*)을 주는” 언어이며, 후자는 “사회, 문화적으로 통용되는 이미지의 상징, 신화의 메타포에 의존하며 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다(Gerkin, 1998, 64-65) 여기에서 목회상담자의 역할은 “신앙과 궁극적인 목적의 물음”에 기초하여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그들의 편에 서서 삶의 구조를 재건하여주고, 그들의 의미 언어를 재건하도록 해석해주고 안내해주는 것이다”(Gerkin, 1998, 65).

거킨은 위기에 처한 내담자들을 먼저 심리학의 관점에서 개인적 차원의 “내면심리”에 초

점을 맞추어서 인식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회학에 기초하여 이들을 “사회적 힘,” “문화적 영향력”(개인 사회, 문화 공동체) 이라는 더 넓은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훗날 보니 밀러-맥리모어(Bonnie Miller-McLemore)가 제안했던 “살아있는 인간 망(living human web)”의 개념을 선구적으로 제안했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지적할 사실은 그룹과 거킨은 모두 해석학적 교육과 목회상담의 과정에서 이야기를 중요한 매체로 사용하였다. 비록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은 모두 이야기를 통하여 개인의 삶과 성서적, 신학적 차원의 규범적 이야기와의 만남을 통한 변형을 추구하였다는 차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런데 그룹과 거킨의 경우 인간의 아래로부터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이야기 사이의 만남에서 양자의 상호적 차원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반면, 켈벨을 비롯한 후기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바르트적인 입장에서 후자의 우선성과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신앙공동체적 형성 유형에서도 다양한 타학문과의 대화를 시도하지만 웨스터호프와 켈벨은 조금 상이한 접근을 시도한다. 웨스터호프는 신앙 문화화라는 관점에서 신앙형성의 중요한 통로를 공동체 안에서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예배를 비롯한 다양한 의례들, 전통과 성서 이야기의 공유, 공동 활동으로 보면서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의 통찰을 많이 활용한다.

켈벨의 경우는 네오 아리스토텔레스적 공동체 윤리, 문화인류학, 사회학, 언어학, 문학이론(노스롭 프라이) 등과 같은 다양한 학문들과 대화를 통하여 품성, 덕, 공동체 형성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여기에서는 언어적인 차원 특히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공동체적 신앙형성은 언어를 배우는 과정과 유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참여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켈벨에게 있어서 학제적 대화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ad hoc*의 형태, 즉 임시적 형태로 나타난다. 타학문과의 대화에서, 비판적 상관관계 신학과는 대조적으로, 특정한 학제와 임시적인 관계를 설정하여 부분적으로 동의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채택하며, 타학문을 하나의 전체적인 체제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4. 실천의 문제

세 가지 유형은 모두 이해에는 해석이 내재되어 있고 해석에는 적용이 내재되어 있다는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을 공유한다. 가다머는 “실천지”(實踐知)로 번역되는 “프로네시스”(phronesis)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이론-실천이 시간적 순서에 의해 원인과 결과로 이분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천으로의 적용은 이해 이후에 생기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해석에 있어서의 지평융합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실천적 물음 및 전 이해들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이미 융합되어 있는 과정을 말한다”(권수영, 208). 이처럼 실

천-이론-실천의 순환적 관계에 대한 이해는 오늘의 신학에서 이론-실천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특히 이는 이론에서 실천이라는 일방적 관계를 전제하는 근대 신학 백과사전적 이해에 기초한 응용신학으로서의 실천신학 패러다임을 극복하는데 큰 공헌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유형은 이러한 해석학적 전제를 공유하지만, 학자들 사이에는 또한 차이가 존재한다. 즉, 비판적 상관관계 신학 유형에 속하는 브라우닝과 해석학적 유형의 거킨은 그룹보다는 상대적으로 전통과의 대화를 통한 실천 이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또한 양자는 묵회상담과 돌봄이라는 실천의 지평을 개인적이며 교회적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 차원으로 연계하고 확대해 나가는 데도 공헌하였다. 즉 이들은 상담과 돌봄이라는 실천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개인적 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교회, 사회, 문화, 정치적 상황들과 깊이 연계되어 있는 교회적, 사회적, 공적 차원이 존재함을 강조하였다.

반면, 해석학적 유형에 속하는 그룹은 하버마스의 비판 사회철학과 해방신학의 관점에서 전인적 인간해방을 지향하는 현실 변혁적 차원의 실천, 즉 비판적 프락시스를 더욱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변혁을 지향하는 인간해방의 비판적 프락시스는 “존재론적 소명”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신앙공동체 형성의 유형에 속한 실천신학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비판적 프락시스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차원의 주체성과 이성적 차원의 비판적 성찰에 강조점을 두기에 실천의 전인성과 공동체적 형성차원이 부족하다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앙공동체적 형성 유형에서 웨스터호프의 경우 기독교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특정한 신앙공동체 내에서 공유된 전통적 실천들이 강조된다. 특히 온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신앙공동체의 공동 예전과 활동들은 신앙형성에 핵심적인 실천들이다(장신근, 2021; Park, 2017). 또한 신앙공동체는 웨스터호프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적 전통과 실천을 통합하는 능력인 프로네시스가 형성되는 핵심적인 현장으로 간주된다.

한편, 캠벨은 자유주의 신학이 전제하는 인간의 보편적 종교경험과 이에 수반하는 개인주의적 실천을 비판하면서 기독교적 실천이 지닌 구체적인 공동체적 특성을 주장한다. 그는 매킨타이어의 실천 개념에 기초하여 설교는 특정의 신앙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세워가는 실천”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에서 사람이란 개인적 차원도 포함하지만 이들의 모임인 공동체적 차원도 포괄하므로 설교는 공동체를 세워가는(building up, oikodomein) 실천이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실천은 영적인 차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정체성을 공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며, 구체적이며 공적인 형태의 사회단체 혹은 고대 플리스 형태와 같은 사회정치적 공동체를 포괄한다(Campbell, 2001, 349). 그러나 앞서서도 지적한 것처럼 사회 변혁을 지향하는 공적이고 정치적 차원의 실천에 대한 구체적 제안은 여전히

히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VI. 나가는 말

20세기 후반의 실천신학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실천신학자들이 시대적 도전에 어떻게 응답하였는지를 살펴보면, 그 이전의 실천신학적 유형들과 비교해 볼 때, “근대성의 도전”이 “포스트모던적 도전”으로 옮겨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날 실천신학이 직면한 도전은 이에서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생태적 위기, 포스트 코로나, 세계화의 쇠퇴로 인한 신냉전 등의 또 다른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오늘의 실천신학, 특히 기독교교육학은 신학적으로는 생태신학, 성례전 신학, 후기식민주의 신학, 포스트휴먼 신학, 기술신학, 사이버 신학, 몸의 신학 등과 대화하면서 신앙적, 신학적 정체성과 관계성 혹은 시대 적합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호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학제적 대화의 차원에서도 횡단적 모델과 같이 신학적 정체성을 충실히 지켜나가면서도 타 학문과 상호 건설적이며 창조적 관계성을 지향하는 모델을 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천적 차원에서도 평신도, 제자, 혹은 하나님 백성의 실천, 목회자의 실천, 교회의 실천 등을 비롯하여 사회적, 공적, 생태적, 그리고 디지털의 차원까지를 아우르는 폭넓은 실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백은미, 2019; 홍성수, 2021).

참 고 문 헌

- 김은주 (2022). 습관 형성으로서의 예배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이해. **기독교교육논총**, 70, 239-65.
- [Kim, E. J. (2022). Christian educational understanding of worship as habit form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70, 239-65]
- 백은미 (2019). 기독교 시민교육을 위한 교육신학적 모색. **기독교교육논총**, 59, 93-123.
- [Paik, E. M. (2019). Theological foundation for Christian citizenship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59, 93-123]
- 손운산 (2012). 제3장: 시워드 힐트너. 한국목회상담학회. **현대목회상담학자연구**. 서울: 돌봄, 64-88.
- [Son, U. S. (2012). Korean Association of Pastoral Counselors ed. *A Study on the modern pastoral counselor*. Seoul: Dolbom Press, 64-88]
- 안석모 (2001). **이야기 목회, 이미지 영성**. 서울: 도서출판 목회상담.
- [Ahn, S. M. (2001), *Story, image, and spirituality*. Seoul: Pastoral Counseling]
- 양금희 (2007). **해석과 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Yang, K. H. (2007). *Hermeneutics and Christian education*. Seoul: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Press]
- 유은희 (2019). James. K. A. Smith가 제안하는 기독교교육 및 형성에 관한 고찰. **기독교교육논총**, 60, 153-93.
- [Yoo, E. H. (2019). A Study on Christian education and formation envisioned by James. K. A. Smith.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60, 153-93]
- 장신근 (2021). 통전적 신앙형성을 위한 교리교육의 재개념화. **기독교교육논총**, 68, 175-216.
- [Jang, S. G. (2021). Reconceptualization of catechesis for forming holistic Faith.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68, 175-216]
- 홍성수 (2021). 신자유주의 이후 생명 위기와 회복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역할. **기독교교육논총**, 67, 267-99.
- [Hong, S. S. Roles of Christian education for restoring life crisis after neo-liberalism.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67, 267-99]
- Browning, D. (1986). **실천신학**. 이기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원저 1983 출판)
- [Browning, D. (1986). *Practical theology*. Translator: Lee, G. C. Seoul: The Christian Press of Korea. (Original book published in 1983)]
- Campbell, A. (1983). 실천신학은 가능한가? 단 브라운닝 편. **실천신학**. 이기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239-49. (원저 2000 출판)
- [Campbell, A. (1983) The nature of practical theology. Woodward J. & Pattison S. eds. *The Blackwell reader in pastoral and practical theology*. Translator: Lee, J. C. Seoul: The Christian Press of Korea, 239-49. (Original book published in 2000)]
- Campbell, C. (2001). **프리칭 예수**. 이승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원저 1997 출판)
- [Campbell, C. (2001) *Preaching Jesus*. Translator: Lee, S. J. Seoul: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Original book published in 1997)]
- Gerkin, C. (1999). **목회적 돌봄의 개론**. 유영권 역. 서울: 은성. (원저 1997 출판)
- [Gerkin, C. (1998). *An introduction to pastoral care*. Translator: You, Y. G. Seoul: Eunsung Press. (Original book published in 1997)]
- Gerkin, C. (1998). **살아있는 인간문서**. 안석모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저 1984 출판)
- [Gerkin, C. (1998). *The living human document: Re-visioning pastoral counseling in a hermeneutical mode*. Translator: Ahn, S. M. Seoul: Korean Institute for Contemporary Psychoanalysis. (Original book published in 1984)]

- Gerkin, C. (1986). *Widening the horizons: Pastoral responses to a fragmented society*. Philadelphia: Westminster.
- Groome, T. (1983). **기독교적 종교교육**. 이기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원저 1980 출판)
- [Groome, T. (1983).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Translator: Lee, K. M.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Press. (Original book published in 1980)]
- Groome, T. (1997). **나눔의 교육과 목회**. 한미라 역.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원저 1991 출판)
- [Groome, T. (1997). *Sharing faith: A comprehensive approach to religious education and pastoral ministry*. Translator: Han, M. R. Seoul: The Board of Publication, The Korean Methodist Church. (Original book published in 1991)]
- Hurding, R. (2000). **치유나무**. 김예식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저 1986 출판)
- [Hurding, R. (2000). *Roots and shoots: A guide to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ranslator: Kim, Y. S.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Press. (Original book published in 1986)]
- Kelsey, D. (1997) "Paul Tillich." David Ford ed. *The modern theologians: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in the twentieth century*. 2nd ed. Oxford: Blackwell Publishers Ltd., 87-104.
- Murphy, D. (2004). *Teaching that transform: Worship as the heart of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 Osmer, R. R., & Schweitzer, F. (2003). *Religious education between modernization and globalization: New perspectives o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 Co.
- Park, J. K. (2017). An educational ministry for children through the community of faith-enculturation paradigm: The case of G church.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49, 211-44.
- Ramsay, N. (2012). **목회상담의 최근동향**. 문희경 역. 서울: 그리심. (원저 2004 출판)
- [Ramsay, N. (2012).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Redefining the paradigms*. Translator: Moon, H. G. Seoul: Grisim Press. (Original book published in 2004)]
- Sherrill, L. (1986). **만남의 종교심리**. 정용섭 역. 서울: 전망사. (원저 1953 출판)
- [Sherrill, L. (1986). *The struggle of the soul*. Translator: Jeong, W. S. Seoul: Jeonmang Press (Original book published in 1953)]
- Sherrill, L. (1981). **만남의 기독교교육**. 김재은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원저 1955 출판)
- [Sherrill, L. J. (1981). *The gift of power*. Translator: Kim, J. E. Seoul: The Christian Press of Korea. (Original book published in 1955)]
- Tillich, P. (1951, 1957, 1963). *Systematic theology 3 vol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racy, D. (1975). *Blessed rage for order: The new pluralism in theology*. New York: The Seabury Press.
- Tracy, D. (1986). 실천신학의 기초들. **실천신학**. 이기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61-101. (원저 1983 출판)
- [Tracy, D. (1986). The foundations of practical theology. Browning, D. S. ed. *Practical theology*. Translator: Lee, G. C. Seoul: The Christian Press of Korea, 61-101. (Original book published in 1983)]
- Westerhoff, J. (1999). **교회의 신앙교육**. 정용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원저 1976 출판)
- [Westerhoff, J. (1999).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Translator: Jeong, W. S. Seoul: Korea Council of Christian Education. (Original book published in 1976)]
- Westerhoff, J. & Willimon, W. (1992). **교회의 의식과 교육**. 박종석 역. 서울: 베드로서원. (원저 1980 출판)
- [Westerhoff, J. & Willimon, W. (1992). *Liturgy and learning through the life cycle*. Translator: Park, J. S. Seoul: Peter. (Original book published in 1980)]
- Woodward, J. (2007). **목회신학과 실천신학의 이해**. 권수영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저 2000 출판)
- [Woodward, J. (2007). *The Blackwell reader in pastoral and practical theology*. Translator: Kwon, S. Y.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Original book published in 2000)]